

# 중국의 대만정책 관련 싱크탱크(智庫)의 역할과 특징

이광수(국민대)

## 1. 서론

중국에 있어서 대만은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미수복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양안은 분단된 상태이며 미수복지역에 대한 원상회복은 보통 전쟁 혹은 평화 두 가지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원화되어가고 복잡성을 더해가는 현재의 국제정치적 상황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자라면 분단문제의 해결, 즉 통일은 많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할 전쟁 방식보다는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선호할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과 공산당 통치의 안정성을 최우선목표로 삼아온 현 중국 지도부는 양안의 '평화공존 일국양제'라는 통일방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에서, 동시에 종종 무력 통일 가능성도 언급하는 등 대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강온 양면 전술을 채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만정책에 대해서 대만은 3가지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통일전선전략으로 평가한다. 우선적으로 대만독립 시도를 중단시키고(不獨), 다음으로 통일을 위한 대내외적 환경을 점차적으로 조성해 가면서(促統), 최종적으로 일국양제 방식으로의 통일을 완성하려(一國兩制)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정책결정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온 대만의 자오젠민(趙建民) 중국문화대학 교수는 개혁개방이후 나타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변화의 특징을 대략 세 가지로 개괄한 바 있다. 첫째, 일원적 제도구조가 다원적 제도구조(비공식조직 포함)로 전환하고 있으며 정책결정의 분석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었다. 둘째, 인물중심에서 점차 제도중심으로 바뀌었다. 패권주의적 엘리트 결정 모델에서 권위주의적 엘리트 결정 모델로 전환하고 있다는 의미다. 셋째, 중국사회에 대한 관리통제가 느슨해지면서 정책결정도 단일 모델에서 다원 정책결정모델로 전환되고 있으며, 전체주의적 독재에서 권위주의적 독재로의 전환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정책결정환경 변화와 연계되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sup>1)</sup>

이처럼 정책결정과정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비공식조직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작용하며, 그 과정에서 전문 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구성된 싱크탱크의 발전과 국가 정책결정과정으로의 정치참여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기존 제도에 속하는 내부그룹(inner group)에 의한 정책 결정과 함께 싱크탱크와 같은 전문가 그룹이 외부 그룹(outer group)으로서 자문 역할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공산당, 국무원, 인민해방군, 지방정부 이외에 기업, 시민사회, 매체, 싱크탱크 등 새로운 행위자들이 대외정책과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로 나타나며,<sup>2)</sup> 특히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서 ‘사회주의신형싱크탱크(社會主義新型智庫)의 건설’을 당정 사업의 주요 목표로 내세우는 것은 이를 반영한 것이며, 때문에 새로운 싱크탱크의 설립과 기존 싱크탱크의 영향력 강화를 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싱크탱크의 발전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sup>3)</sup>

1) 자오젠민 저, 서상민·이광수 역, 『중국의 정책결정』, 학고방, 2018. pp. 52-53.

2) 김애경, 정종필,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싱크탱크의 역할과 지위 변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1(1), 2017. 4. p. 202

특히 대만문제는 주권 및 영토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의 핵심이익으로 간주되면서 당정 지도부의 관심이 집중되며, 따라서 정책결정과정에는 당정 공식 기구 이외에도 은퇴 관료, 대학 혹은 연구기관의 전문가 혹은 학자와 같은 비공식적 기구에 속한 싱크탱크가 정책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글은 대만정책 혹은 대만문제에 관여하는 대만관련 싱크탱크의 역할과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먼저 중국 싱크탱크에 대한 분류와 기본적인 특징을 다음으로 대만정책을 결정하는 공식 구조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대만관련 연구를 하는 싱크탱크의 설립과정과 분류에 따른 특징을 분석하는 순서로 구성되었다. 결론에서 중국형 싱크탱크의 역할에 대해 나름의 평가를 해보고자 했다.

## II. 중국 싱크탱크의 분류와 기본 특징

중국의 싱크탱크는 개혁개방과 함께 발전되었다. 경제체제 전환과 함께 사회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세판단과 정책결정을 해야 할 당정 지도부에게 관방, 민간을 막론하고 현지 조사, 연구 분석,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고도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싱크탱크 건립에 대한 요구가 당정 지도부 차원에서 표출되었다.<sup>4)</sup>

먼저 후진타오 시기인 2004년 1월 《중공중앙 철학 및 사회과학 발전의 진일보한 변형에 관한 의견》 문건을 통하여 처음으로 ‘중공중앙’의 명의로 철학사회과학 학계가 당과 정부의 업무를 위한 ‘사상 창고’, ‘브레인 집단’이 되어야 한다면서 싱크탱크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2005년 5월에는 정치국회의에서 ‘사회과학원의 확충, 발전’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고, 다음으로 시진핑 시기 역시 2014년 국가의 소프트파워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싱크탱크를 국가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 추진을 위해 ‘중국특색의 신형 싱크탱크 건설’을 당정의 중대한 임무라고 천명하면서 국가전략 차원에서 싱크탱크의 발전을 강조했다. 또한 2017년, 2018년 지속적으로 시진핑은 ‘사회주의 신형 싱크탱크 건설의 강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강조하는 중국형 싱크탱크의 발전을 다시 천명하기도 했다.

### 1. 설립 주체의 성격에 따른 싱크탱크 분류

중국의 싱크탱크는 설립 주체의 성격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관방(官方), 대학, 민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싱크탱크의 전문성의 영역에 따라 외교 및 국제정치, 군사안보, 경제, 사회 등 네 종류로 분류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관방, 대학, 민간 세 종류의 싱크탱크 분류를 기준으로 서술했다.

#### 1) 관방 싱크탱크

관방 싱크탱크는 중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싱크탱크로 당정군(黨政軍) 계통과 사회과학원(社會科學院) 계통 2가지로 분류된다. 당정군 싱크탱크는 법률과 행정부서의 조례에 따라 공산당과 정부, 군대 내부에 설립된 기구로 소속 부서의 지도자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지적서비스

3) 中辦國辦印發 關於加強中國特色新型智庫建設的意見,  
<http://theory.people.com.cn/n/2015/0121/c49150-26421134.html>

4) 2장은 陳先才, 台灣地區智庫研究, 九州出版社, 2015.에서 분석한 내용을 기준으로 서술된 것임.

를 제공한다. 당정군 부문의 연구기관, 사과원 계통, 당교 계통, 행정학원 계통 등 네 종류의 연구, 조사, 교육기관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전국 각지의 당교나 행정학원 계통은 상하 관계와 같은 서열이 있다. 사회과학원 계통이 가장 중국특색적 싱크탱크인데, 사과원은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당정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이며, 운영자금은 정부의 재정 지원 및 후원금으로 충당하는데 대부분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정책자문료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이외의 중국과학원,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등 관방 싱크탱크는 모두 정부가 설립한 싱크탱크이다. 따라서 정부가 예산을 배분하여 연구기구 운영비, 연구비 등의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싱크탱크는 당정 기관이 요구한 지령성 과제 연구를 진행하고 때로는 외부 선전과 인민을 대상으로 홍보 임무를 부여받기도 한다. 중국 관방 싱크탱크는 사업단위로 편제되기 때문에 일부 관방싱크탱크의 연구원은 공무원 신분이며 행정급별에 따른 대우를 받고 있다

대만의 한 연구통계에 의하면 1990년대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중국의 사회과학 관련 연구기구는 5대 계통으로 분류되고, 연구기구의 숫자가 2,500여개가 넘으며, 전직 연구인원이 3.5만 명, 업무수행인원이 27만 명으로 되어있으며, 이중 철학, 언어, 문학 등 정책결정 혹은 정보 관련 연구와 관련이 먼 기구를 제외하면, 직간접적으로 정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싱크탱크가 대체로 2,000여 곳이라고 한다.<sup>5)</sup> 그리고 이들 싱크탱크 중 거의 대부분이 관방 연구기구이다. 현재 중국의 모든 싱크탱크 가운데 관방 연구기구가 이른 시기에 설립되고, 규모도 크며, 신속하게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평가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아래 표1은 중국의 대표적인 관방 싱크탱크를 모아놓은 자료인데, 중요도 즉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순서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즉 중앙당교, 중앙정책연구실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직속 연구기구이며,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중국사회과학원, 국가행정학원은 국무원 직속의 사회과학분야 연구기구이다. 또 설립시기를 보면 중앙당교, 중국과학원, 군사과학원, 재정과학연구소 등 네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싱크탱크가 개혁개방정책이 시작되면서 설립된 것을 볼 수 있다.

표1) 중국의 주요 관방 싱크탱크(영향력 순) (陳先才, 2015. p. 255. 기초로 내용 추가)

명칭	설립	기구 속성	웹사이트
중공중앙당교	1933 이후	중공중앙 직속	
중공중앙정책연구실	1981	중공중앙 직속	
국무원발전연구중심	1981	국무원 직속	
중국사회과학원	1977	국무원 직속	
중국과학원 * 비사회과학 연구기구	1949	국무원 직속	
중국공정원 * 비사회과학 연구기구	1993	국무원 직속	
국가행정학원	1994	국무원 직속	
군사과학원	1958	중앙군사위 직속	
중국인민해방군 국방대학	1985	중앙군사위 직속	
국가발개위 홍콩경제연구원	1988	중앙부위 직속	
상무부 정책연구실	1997	중앙부위 직속	
중국국제문제연구소	1986	중앙부위 직속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1956	중앙부위 직속	
중국인민은행 연구국		중앙부위 직속	

5) 傅永俊 中國智庫角色與功能之研究, 台灣政治大學碩士論文, 2007, p. 26. 陳先才, 261. 재인용

국가신식중심	1987	중앙부위 직속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연 구중심	2003	중앙부위 직속	

## 2) 대학 싱크탱크

중국의 대학 싱크탱크 역시 중국 형 싱크탱크를 구성하는 중요한 연구기구이다. 주로 대학교(원)에 소속되어 정책연구와 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고급 인재 양성, 관련 학과 발전을 통하여 종합적인 지적 지원 활동을 하며, 여기에 대학 연구기구만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화대학 공공관리학원의 중국국정연구중심, 북경대학의 중국경제연구중심, 중국인민대학의 중앙금융연구원 등이 있다. 한편 대학과 외부(정부 등)와 협력 하에 생겨나는 싱크탱크도 있다. 1999년 설립된 청화대학 국제전파연구중심은 정부의 소프트파워 진흥 계획과 국가 이미지 연구에 긴밀하게 결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국무원 신문판공실과 공동으로 정부 부서의 언론대변인(新聞發言人)제도를 설립하는데 지원 역할을 하기도 했다.

중국의 대학은 비록 정부기구는 아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도 보조받기 때문에 순수한 성질의 민간기구라고도 말할 수 없다. 때문에 대학의 많은 연구기구는 관방도 아니고, 민간도 아닌 성격을 지닌 대학 싱크탱크이다. 현재 중국 전체 사회과학분야 연구인력 가운데 80% 이상이 대학에 집중되어 있고, 이공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기구인 양원(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의 원사 중 과반수가 대학에 있고, 해외 고급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 계획(千人計劃)’ 당사자 중 60%가 대학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밖에 대학에는 방대한 규모의 석박사 연구생과 본과생(학사생)들이 존재하고, 이들을 교육시켜 싱크탱크 인력으로 양성하는 인재 공급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동시에 대학은 다양한 학문분야와 기초적인 연구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싱크탱크가 단기간의 정책연구와 장기간의 전략연구를 함께할 수 있는 풍부한 학술 원천 역할을 한다. 이외에 대학이 진행하는 대외적인 학술교류와 협력 사업은 광대한 국제적 시각과 국제 학술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3) 민간 싱크탱크

민간 싱크탱크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연구기구이다.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법인자격을 갖춘 영리성 전문가 기구로 ‘민판비기업단위(民辦非企業單位)’성격의 싱크탱크와 기업 자문업무를 주로 하는 ‘공상업 계통의 연구 기업’ 등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이들은 정부, 단체, 개인 등 연구 위탁자에게 자문임무를 하고, 위탁자들이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하는 근거자료를 연구 조사하여 제공한다. 현재 중국은 민간 싱크탱크들이 일정 정도 출현하는 상황에 접어들었으며, 공공정책과 관련한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경제사회의 지속 발전에 따라 민간 싱크탱크는 사회공공생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민간 싱크탱크의 장점은 싱크탱크와 위탁단위가 요청하는 자문 대상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관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체제 내의 연구기구 즉 관방 혹은 대학 싱크탱크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의견을 표시할 때 종종 지도자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에 맞춰 진행하거나, 논증식의 자문에 편중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반응이나 반대 관점의 결론은 가급적 생략하는 관행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 싱크탱크는 여러 방면의 전문가와 권위를 갖춘 인사를 참여시켜 적절한 비용보상 서비스를 전제로 고효율의 업무방식을 사용해 총체적인 상황분석과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공한다는 이점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민간 싱크탱크는 아직 초보적 발전단계에 있다. 민간 싱크탱크의 발전은 경비 부족, 인재 결핍이라는 본질적 한계 이외에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의 현실적 한계점들이 민간 싱크탱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어느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2,500여 싱크탱크 가운데 민간은 전체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간 싱크탱크의 연구인력 대부분이 대학 혹은 관방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민간 싱크탱크의 연구과제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표2) 중국 싱크탱크의 기본 유형 (陳先才, 2015. p. 263 인용)

유형	구성 부분	대표적 싱크탱크
관방	당정군 부문 정책연구기구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사회과학원 계통	중국사회과학원
	당교 계통	중공중앙당교
	행정학원 계통	중국행정학원
대학	대학 소속 정책연구자문 조직	청화대학 중국국정연구중심 북경대학 중국경제연구중심
민간	민반 비기업단위 혹은 공사업 형식	북경 텐저(天則)경제연구소 북경 링덴(零點)조사연구집단 북경 쥬딩(九鼎) 공공사무소

## 2. 중국 싱크탱크의 기본 특징

중국 싱크탱크는 현재까지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먼저, 개혁개방의 진척 정도 즉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의 체제개혁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싱크탱크 발전 추세가 먼저 관방 주도 형태가 구축된 이후 대학 그리고 민간 싱크탱크 순서로 함께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며, 마지막으로, 중국 싱크탱크의 전문성, 영향력, 국제화 수준이 지속 발전하여 중국특색의 정책결정 자문체제와 공공정책 형성시스템을 형성했다는 점이 기본 특징으로 정리된다.

첫째, 중국 싱크탱크의 발전은 중국의 정치 변천, 경제사회체제개혁의 영향을 받아왔다는 점이다, 즉 개혁개방의 진척정도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래 사상해방운동의 흥기와 현대화사업의 지속적 수행, 관련 지식과 정책연구자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철학 및 사회과학의 발전을 추동하는 정책연구 자문사업의 탄생과 발전에 역사적 계기를 마련해 줬다.

중국의 국제관계 영역의 싱크탱크를 사례로 들면, 중국경제의 부단한 발전에 따라 중국과 외부세계의 상호접촉도 크게 증가하고, 중국의 국제관련 정보와 지식의 수요 욕구도 증가하고, 국제관계의 학술 훈련도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자금 출원지도 다양해지고 증가했다. 국제관계 싱크탱크 혹은 연구소 그룹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면서 부장급(장관급) 관료도 빈번하게 소속 싱크탱크에 정책자문과 연구조사를 요구하였다. 1980년대 이래 중국의 국제관계 분야의 연구기구는 문혁 과정에서 폐쇄되었으나, 80년대 이후 다시 설립되고, 새로운 싱크탱크들도 줄지어 설립되었다. 예를 들어 국제문제와 관련한 종합적 연구기구로 인정받는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는 1980년 설립되었고, 1986년 설립된 중국국제문제연구소는 예전에 존재했던 국

제관계연구소를 명칭만 변경하여 다시 설립한 것이다.

둘째, 중국의 싱크탱크 체계는 기본적으로 관방 주도 형태로 형성되고, 다음으로 대학 싱크탱크가 마지막으로 민간 싱크탱크가 함께 발전하는 추세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의 관방 싱크탱크의 발전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규모면에서도 절대적 우세를 보이며, 사회적 영향력도 비교적 크며, 중국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건설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지식생산 및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당정의 싱크탱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방 싱크탱크는 정책결정의 전후 과정에 모두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부의 정책결정 수준이 과학화, 민주화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민간 및 대학 싱크탱크의 발전도 성과를 내고 있다. 1990년대 이래 중국사회에 초기의 민간 싱크탱크가 출현하여, 중국 싱크탱크체계에서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하였다. 동시에 대학 싱크탱크도 흥기하기 시작하면서, 대학 싱크탱크가 중국특색의 싱크탱크 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되었다. 특히 대형 규모의 연구기구는 많지 않으나 개별 연구소 숫자가 많고, 다양한 연구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싱크탱크의 다원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즉 중국 싱크탱크는 초기의 막후 참모 역할에서 점차 막전(전면)에서 활약하는 역할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고, 전체적으로 관방 위주에서 관방, 대학, 민간의 공동 발전의 상태로 전환하고 있다.

셋째, 개혁개방 이래 중국 싱크탱크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중국 싱크탱크의 전문성, 영향력, 국제화 수준이 부단히 높아지면서 중국특색을 지닌 정책결정 자문체제와 공공정책형성시스템이 초보적으로 수립되었다. 예를 들어 당 중앙의 직접영도, 국무원 직속의 국가 급 철학사회과학연구기구로서 중국사회과학원은 오랫동안 지식 콘텐츠로 사회 서비스, 대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 하에서, 중요한 현실 및 이론적 문제에 집중하면서 당과 국가를 위한 정책 제언 역할을 수행했다.

개혁개방 이래 역사적 변곡점마다 당의 대정방침에서 구체적인 제도 구축까지 중국사회과학원은 조사를 통하여 자신의 소리를 내고 당과 국가의 사상창고와 브레인 그룹의 기능을 발휘하고자 했다. 특히 최근 중국사회과학원은 전문화, 전업화, 직업화를 목표로 하는 혁신을 하면서 대중을 대상으로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작업도 진행하고, 이를 위하여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정세 관련 연구보고서를 블루 페이퍼(藍皮書), 옐로우 페이퍼(黃皮書)라는 명칭으로 출판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들은 중국특색의 싱크탱크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중국 싱크탱크의 발전 수준은 여전히 서구 선진국과는 차이가 크다는 내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중국의 싱크탱크의 규모면에서 비교적 작고, 발전의 불균형 문제, 정부 정책결정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이다. 특히 중국의 싱크탱크는 전략적 계획 수립과 종합 분석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중국의 정치체제의 제한에 따라 싱크탱크 기구의 정책연구 질적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도 같이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중국 싱크탱크의 발전 수준은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문성, 국제화, 영향력을 고양시켜야 할 과제가 있다고 평가한다.

### Ⅲ. 대만정책결정의 기본구조

중국의 대만정책결정과정을 연구한 대만 연구자는 기본 구조를 영도기구, 집행기구, 중점운

용기구와 수권위탁기구 등 크게 4등급으로 분류했다. 영도기구와 집행기구가 내부그룹이며, 중점용용기구와 수권위탁기구는 외부그룹이다. 또한 업무 성격에 따라 서비스, 사무, 정책, 경제, 연구 및 정보수집 등 6가지로 분류하기도 하고, 소속 단위에 따라 당, 정, 군, 경제, 신문, 외교, 정협, 통전 등 8가지 계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sup>6)</sup> 물론 중국 특유의 조직시스템인 ‘티아오-콰이’구조(條塊關係)에 따라 일부 기구는 여러 계통에 중첩되면서, 각기 다른 상급 기구의 영도와 지도를 받는 관계에 있다. 이 장에서는 주요하게 대만정책결정시스템에서 내부그룹으로서 작용하는 영도기구와 집행기구를 간략히 소개한다.

## 1. 영도기구

대만정책 기본구조는 중국의 핵심 국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당정 기구 역시 최고 권력기구들로 구성된다.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당국가 시스템에서 중국공산당의 최고 의사결정자 역할을 하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군사 분야의 최종결정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 대만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문별 최고 책임자급이 참여하는 중앙대만공작영도소조가 이에 해당한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7명의 상무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로써 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구이며 이들은 국가주석, 국무원 총리, 전국인대 상무위원장, 전국정협 주석,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국무원 상무부총리 등의 직책을 맡아 당국가체제에서 최종결정권을 행사하며, 따라서 대만정책에 있어서 최고정책결정기구라 할 수 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보통 당총서기 이자 국가주석이 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임명되고, 보통 군사 분야의 책임자 2인을 부주석으로 하여 군사 분야에서의 최종결정권을 행사한다.

중앙대만공작영도소조는 대만정책결정과정에서 조정, 협력 기능을 발휘하는 의사소통기구로서의 성격을 지니는데, 고유의 군사, 정보 분야 이외 경제, 문화, 교육 등 대만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부서들을 포함하고 있다. 보통 소조 조장은 당총서기, 국가주석, 군사위 주석 직책을 맡은 당정 최고 권력자가 담당하며, 부조장은 민족문제, 홍콩, 마카오, 대만 등 통일전선분야에서 최고위급인 전국정협 주석이 담당한다. 19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과 왕양이 각각 조장과 부조장 직책을 담당하고 있다. 19차 당대회 이후 소조원들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2013년에 구성된 시진핑 1기의 대만영도소조 구성원 분포를 보면 당시의 대만정책의 중점사항을 유추할 수 있다. 시진핑 조장, 위정성 부조장 이외에 왕치산 기율검사위 서기와 류치바오 중앙선전부장, 양징 국무원, 두칭린 정협 부주석, 판창룡 중앙군사위 부주석, 양제츠 국무원, 장즈쥔 중공중앙대만판공실, 국무원대만판공실 주임, 가오후청 상무부부장, 경웨이창 국가안전부장, 순젠궈 해방군부총참모장 등 선전, 통일전선, 외교, 국방, 대만사무 부문 당정 고위급 관료들이 포진해 있다. 구성원 분포를 통해 보더라도 중국의 대만정책은 선전, 통일전선, 외교, 국방 등 이데올로기와 국방, 외교를 중심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대만정책의 방향을 잡는 회의가 매년 연초에 개최하는데 이를 ‘중앙대대공작회의(中央對台工作會議)’라고 한다. 2018년 2월에 개최된 회의에는 정치국위원 겸 국무원원 양제츠가 회의를 주재하고, 중대판 국대판의 장즈쥔이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이 회의는 중앙 당정군 관련 부문과 지방 각지의 관련 책임자들이 참여하는데, 중앙 이외에 지방 차원에서 대만사무를 관할하는 당정인사들이 참석대상이다. 2018년 회의에서는 19차 당대회

6) 洪儒明, 民進黨執政後的中共對台政策, 台北: 秀威出版, 2004. 05. p. 127 - 160?

이후 교체된 신구 인사들이 참석했는데, 정협 주석으로 상무위원이었던 자칭린, 위정성과 새로 진입한 왕양이 모두 참석했다. 그만큼 대만정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이다. 이번 회의에서 3가지 내용을 핵심적 과제로 제시했는데, 우선 ‘통일’ 의미를 대만병합이 중화민족의 연합으로 정의하고 민족단결이라는 측면을 강조했다. 또한 대만 독립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는 강경 대응과 양안교류의 실재화라는 온건 대응 방식을 동시에 하는 대만정책의 원칙적 측면을 확인했다.<sup>7)</sup>

## 2. 집행기구

집행기구 부분과 관련하여 중국은 대만사무를 중시하기 때문에 대만관련 기구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대만정책결정 관련 기구와 인원편제 역시 증가하고 있다. 집행기구로는 당정군과 국가안보계통의 중앙통전부, 중앙선전부, 총참모부, 총정치부, 국가안전부가 집행기구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는 국무원 직속의 국대판 조직과 외교부가 대만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밖에 지방차원의 대판 조직, 외교부, 상무부, 교통부 등 정부 부서별 대만사무판공실, 국가안전부, 해방군의 정보작전부서, 신화사 대만사무부, 지방인대 대만동포공작위원회 등이 있다.

여기서는 대만정책의 구체적인 집행과 대만과의 관계에서 공식적으로 최일선에서의 대응을 담당하는 국무원대만판공실, 국대판(國臺辦)을 소개한다. 국대판은 주로 당중앙과 국무원이 제정한 방침, 정책에 의거하여 국무원 여타 부서와 성, 시, 자치구 인민정부와 경제, 과학, 교육 문화 분야에서의 대만관련 업무의 관리, 지도, 협조를 담당한다.

국대판은 중국의 대만관련 사무를 담당하면서 상부 영도기구의 정책과 지시를 집행하고,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등 대만 업무의 공식적 국가기구이다. 국대판의 최고 책임자인 주임의 임명 역사를 보면 중국의 대만 사무의 중점을 어디에 두는가를 추정할 수 있다. 즉 중국의 대만사무에 대한 중점은 안보전략 측면, 통일전선전략 측면, 외교전략 측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대판의 역사는 1954년 중국공산당이 중앙대대만소조를 구성하고, 1년 후에 대만소조판공실을 설립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건국 초기 공산당 내부기구였던 중대판 시절 주임을 담당했던 양인동(楊蔭東), 뤼칭장(羅靑長), 양스더(楊斯德) 등은 보안업무에 종사했던 해방군 출신이었다. 양안사이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기부터 국무원에도 대만사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설치되면서 군인출신보다는 당관료들이 주임을 맡았다. 이후에는 통일전선부장을 했던 덩관건(丁關根), 왕자오궈(王兆國)가 뒤를 잇고, 인문학적 소양이 높은 흑룡강성 부성장 출신 천원린(陳雲林)이 장쩌민, 후진타오 시기에 주임을 맡고, 2008년에는 해협회장 자격으로 중국 인사로는 대만을 첫 공식방문하기도 했다. 이후 국대판 주임은 또 한번 외교경험을 지닌 인물들이 주로 임명되면서 또 한번의 변화를 보였다. 일본통인 왕이(王毅), 영국대사와 외교부 경력이 오래된 장즈쥘(張志軍), 유엔대사 출신으로 2018년부터 주임직을 맡은 류제이(劉結一) 등이 그들이다.

국대판은 주임 1명, 부주임 약간 명이 대표 책임자급으로 활동하며, 8개의 기능별 국 조직과 기관 당위로 내부 조직이 구성된다. 대만사무는 중국의 핵심이익인 영토와 주권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에 중요한 조직으로 취급된다. 대만 업무는 정치사상이 철저하고 기율이 엄격하

7) 贾庆林、俞正声、汪洋曾先后出席，历年中央对台工作会议，传递出哪些反“台独”信号？  
<https://www.shobserver.com/news/detail?id=79101>



며, 구성원 능력이 우수함을 요구받는다. 대만사무는 대만의 복잡한 정치환경을 이해해야하고, 국제사무경험도 구비해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양안관계에서 미국의 역할은 핵심적이고, 국제선전을 해야 하기에 외국어 구사능력은 기본적인이다.

2017년에 열린 19차 당대회에서 류제이(劉結一) 전 UN 대사가 부주임에 임명되었는데 2018년 2월에 개최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새로이 주임으로 임명되었다. 2016년 잠비아, 2017년 파나마, 2018년 엘살바도르 등 대만 차이잉원 총통 임기 시작 이래 5개국의 외교단절 상태를 야기한 외교적 압박이 주로 이루어졌다. 한편 대만의 외교 고립화 시도 이외에 다국적 기업의 중국내 기업 활동에서 중국과 대만을 분리 식별하는 문화를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국제항공사의 대만 지역 표식도 제한하려는 조치를 취하는 등 외교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대만압박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국대판 등의 외교전문 인사의 임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일부 평가이다.

국무원 대만판공실에는 ‘직속사업단위’로 정보중심, 해협양안관계연구중심, 해협경제과학기술합작중심, 구주문화전파중심, 전국 대만사무 간부연수중심 등의 조직을 두고 있는데, 이들 산하조직을 통해 대만 관련 연구와 사업을 지원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8)</sup>

특히 국대판의 싱크탱크이라고 할 수 있는 해협양안관계연구중심(해연중심)은 2000년 설립되었는데, 설립 취지를 “하나의 중국원칙을 견지하고, 분열반대, 양안관계발전, 조국통일촉진”으로 삼고, 주요 업무를 연구보고서 작성, 연구를 외부 위탁하거나 받기도 하고, 각종 학술회의를 개최하며, 학술교류활동의 전개, 연구논문집 출판 등으로 삼고 있다.<sup>9)</sup> 창립 시기 해연중심은 61명의 겸직특약연구원을 두었는데, 이들은 중앙, 국가기관, 군대부문의 대만연구단위, 사회과학연구기구, 대학교 등지에서 정치, 경제, 법률, 군사, 역사, 사회, 언론, 대외관계, 국제관계 등의 연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밖에 대만을 고향으로 둔 대만인 친목 조직의 성격을 지닌 사회단체로써 중화전국대만동포연의회(中华全国台湾同胞联谊会: 약칭 全国台联)이 있는데, 1981년 설립된 이 조직은 ‘평화통일 일국양제’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요 활동은 대만동포의 가족 상봉, 성묘, 친구 방문, 정착을 지원하고, 경제, 과기, 문화, 학술, 체육 등의 교류도 관심과 지원을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sup>10)</sup> 또한 대만인의 소리(台声)라는 잡지를 월2회 발간하여 대만 관련 뉴스, 인물소개, 역사탐방, 문화교류 등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다.<sup>11)</sup>

또한 대만경제인의 연합조직인 대륙대상협회(大陸台商協會)는 중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경제인들의 조직으로 정치 이슈와는 관여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중국에서 경영활동을 하면서 정치적 입장을 밝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19차 당 대회에서는 대만 가오슝에서 출생한 대만인 루리안(盧麗安) 푸단대학 교수가 처음으로 공산당 전국대표 자격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또한 대만 장교 출신인 린이푸(林毅夫) 전 세계은행 총재와 전국인대 대만성 대표이기도 한 부인 천원잉(陳雲英), 대만 출신이지만 남편을 따라 대륙으로 이주한 린밍위예(林明月) 전 대련 부회장 등 대만 출생의 대만인들이 중국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sup>12)</sup> 이는 양안의 혈연적 유대관계와 문화

8) [http://www.gwytb.gov.cn/gtb/201101/t20110109\\_1685187.htm](http://www.gwytb.gov.cn/gtb/201101/t20110109_1685187.htm)

9) 海峡两岸关系研究中心在京成立, 新华社 2000年09月06日

<http://www.people.com.cn/GB/channel1/10/20000906/220725.html>

10) 全国台联简介, 2018年01月01日, 来源: 台胞之家,

[http://tailian.taiwan.cn/jj/201604/t20160422\\_11440915.htm](http://tailian.taiwan.cn/jj/201604/t20160422_11440915.htm)

11) 《台声》2015年第一期(下)目录, 2016年04月25日 来源: 《台声》, <http://tailian.taiwan.cn/tszz/>

적 일체감을 통해 민족단결 접근법을 채택하는 최근의 대만정책과 일맥상통한 부분이다.

또한 국대판 조직에는 지방 차원의 조직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데, 각 성시 대만판공실이 그것이다. 2018년 3월 국무원 기구 개혁방안이 통과된 이후 최근 들어 중국의 일부 지방에서는 대만사무와 홍콩, 마카오 사무를 통합하는 기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둥과 영하 지역에서 먼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최근에는 복건성에서 기존의 대만판공실에서 대홍오판공실로 명칭을 변경했다. 여기에는 기존 대만판공실 주임이 수평이동하고, 5명의 부주임에 원래의 대만판공실과 화교판공실 부주임이 이동하여 구성했다.<sup>13)</sup> 지방대판은 정치적 경색관계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성시별로 대만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일종의 출구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 사례를 들자면, 상해대판은 상해와 타이베이시와 협상을 통해 12월 하순에 타이베이에서 ‘순환경제’를 주제로 ‘2018 타이베이-상해 성시논단’을 개최하고, 상해시가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11월 24일 대만지방선거에서 가오슝시장에 당선된 한귀위(韓國瑜)는 12월 첫째 주 복건성 하문에서 개최될 예정인 양안기업가연말회의(兩岸企業家峰會年會)에서 양안 기업가들에게 가오슝시의 투자환경을 소개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나왔다.<sup>14)</sup>

#### IV. 대만관련 싱크탱크의 설립과정과 기본 특징

중국 대만관련 싱크탱크 연구는 중국의 정책결정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 중의 하나이다. 중국의 건국 초기에는 싱크탱크의 활용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1980년대 이후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에 따라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연구가 중시되면서 비로소 싱크탱크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대만관련 싱크탱크의 경우도 같은 시기에 설립이 이루어졌다.

##### 1. 대만관련 싱크탱크의 설립 과정

중공 11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의 고위층은 새로운 국내 및 국제정세를 근거로 대만에 대한 전략과 방침을 대폭적으로 조정하여,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 전략을 제기한 이후, 대만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대만문제 연구기구와 싱크탱크의 건립도 강화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하문대학 대만연구원 전신인 대만연구소가 1980년 설립되어 중국에서 대만연구학술기구로 가장 먼저 설립되었는데, 이는 대만과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복건성의 대도시라는 점과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선정된 4곳의 경제특구 중 하나로써 대만경제인과 자본의 유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대상지역이라는 지경학적 조건이 반영된 것이다. 두 번째로 1984년 설립된 중국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는 관방 싱크탱크로 대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외관계 및 양안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술기구이다. 또한 대만 관련 연구자들의 전국 조직 성격을 지닌 전국대만연구회는 1988년 설립되어 해협양안 및 국내외에서 대만문제와 양안관계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학자의 교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언

12) 高雄出生 盧麗安獲選陸十九大台籍黨代表,  
<https://www.chinatimes.com/realtimenews/20171004001967-260409>

13) 福建整併台港澳辦 王玲首任主任, 2018年11月06日, 旺報  
<https://www.chinatimes.com/realtimenews/20181106004936-260409>

14) 韓國瑜下周或赴廈門參加「兩岸企業家峰會」, 大公文匯全媒體  
<http://www.takungpao.com.hk/taiwan/text/2018/1127/211949.html>

급했듯이 대만문제를 당정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중공중앙 대만사무판공실과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도 2000년에 해협양안관계연구중심을 설립하여, 당정 체제 내부에서의 전문적인 대만문제 연구기구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대만 연구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표3에 나타난 대만관련 연구기구의 설립 주체를 보면 대학이 13곳, 사과원 계통 2곳과 국대판 소속 1곳 포함하여 관방이 3곳, 민간이 전국대만연구회, 상해 동아연구소 2곳으로 분류되어 있다. 즉 대학 부설 연구기구가 가장 많은데 이는 양안관계의 정치적 복잡성과 민감도에 따른 환경의 제약에 비교적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연구 집단이 대학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중국학자에 의해 민간으로 분류된 전국대만연구회와 상해 동아연구소의 경우에 대표자나 구성원 분포에 있어서 반관방의 성격으로 보아야 합당할 것이다.

중국의 대만관련 싱크탱크는 정치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중국 정치의 특성상 민간 싱크탱크가 개입할 수 있는 요소가 제한적이다. 때문에 관방, 대학, 민간으로 분류하기보다는 국가급, 지방급, 대학급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 국가급은 국무원대만판공실 소속의 해협양안관계연구중심과 중국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가 해당되며, 국가급 싱크탱크는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급으로 상해 동아연구소와 복건성 사과원 현대대만연구소와 같은 연구기구를 포함한다. 대학급은 현재 90여 개 대학에 대만 관련 연구소가 있다는 통계가 있다. 대학 연구소는 비교적 정책적 책임에 대한 압력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 시간이 필요한 주제와 다양한 주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표3) 중국 대만관련 연구기구(설립시기순) (陳先才, 2015. pp. 264-265. 기초로 내용 추가)

명칭	설립	기구 속성	
하문대학 대만연구원	1980	대학 연구기구	<a href="http://twri.xmu.edu.cn/">http://twri.xmu.edu.cn/</a>
중국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	1984	사과원 계통	
남개대학 대만경제연구소	1986	대학 연구기구	
전국대만연구회	1988	민간학술단체	
북경연합대학 대만연구원	1989	대학 연구기구	
남경대학 대만연구소	1991	대학 연구기구	
절강대학 대만연구소	1991	대학 연구기구	
복건성 사과원 현대대만연구소	1992	사과원 계통	
중국인민대학 대항오연구중심	1993	대학 연구기구	
상해 동아연구소	1995	민간학술기구	<a href="http://www.sssa.org.cn/shdy1/index.htm">http://www.sssa.org.cn/shdy1/index.htm</a>
해협양안관계연구중심	2000	관방 연구기구	
청화대학 대만연구원	2000	대학 연구기구	
계남대학 대만경제연구소	2000	대학 연구기구	
중산대학 대만연구소	2005	대학 연구기구	
상해교통대학 대만연구중심	2008	대학 연구기구	<a href="http://taiwan.sjtu.edu.cn/index.htm">http://taiwan.sjtu.edu.cn/index.htm</a>
북경대학 대만연구원	2010	대학 연구기구	
무한대학 대만연구소	2013	대학 연구기구	
복단대학 대만연구중심	2014	대학 연구기구	<a href="http://www.cts.fudan.edu.cn/index.aspx">http://www.cts.fudan.edu.cn/index.aspx</a>
중국인민대학양안관계연구센터	2018		

## 2. 대만관련 싱크탱크의 기본 특징

싱크탱크는 당정기구의 외곽 조직(outer group)에 귀속되면서 정책 건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서는 정책결정을 위한 참고자료, 해결방안의 제공 등의 참고문건의 성격을 갖는다. 실제 정책결정은 영도 기구(국가급 지도자)에서 이루어진다.

중국은 19차 당대회 이후 당과 국무원의 기구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대만관련 조직정비를 하면서 싱크탱크에 대한 역할 변화를 시도했다.<sup>15)</sup> 이른바 북경, 상해, 복건 세 곳을 대만 싱크탱크 ‘삼두마차(鐵三角)’로 위상을 재확인하고, 북경은 주로 대만정책결정연구를 하면서, 국제시각으로 대만문제를 연구하며, 상해와 복건은 혜대(惠台)와 대만사회인문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조정한다는 것이다. 싱크탱크의 임무는 대만 학자들과 접촉하거나 직접 대만을 방문하면서 정보제공과 자료 수집을 하는데 자문기관으로서의 싱크탱크 역할 범위를 뛰어넘기도 하지만, 실제 정책결정에 반영되는 건의는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대만 언론은 이를 장강을 기준으로 이북(북경)은 강경한(hard) 대응을 기조로 하며, 이남(상해, 복건)은 온건한(soft) 대응을 기조로 역할 분담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 1) 국가급 싱크탱크의 특징

국가급 싱크탱크는 대부분 수도 북경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공식적, 원칙적 입장에서 활동하려는 특징을 보인다. 북경의 국가급 싱크탱크로는 중국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 해협양안관계연구중심(海峽兩岸關係研究中心)<sup>16)</sup>, 전국대만연구회, 개혁개방논단, 화평발전연구중심 등 당정군의 연구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만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시종일관 강경, 급진적인 독립반대(反獨) 입장을 보이고, 조사관찰을 기본적 연구방법으로 하여, 대만의 대륙정책에 대항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정확한 정치’전략적 지도하에 ‘북경 주전파’의 참모 형상을 보인다.<sup>17)</sup>

북경의 대표적인 기구가 바로 중국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이다.<sup>18)</sup> 1984년 설립된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만연구 싱크탱크로써 소속 인원이 90여명으로 가장 많고, 이 중 고급연구원이 20명이다. 대만연구소의 소속 단위는 명의상 중국사회과학원이나 실제 관할하는 상급부서는 국가안전부라고 한다.<sup>19)</sup> 연구소 내부에 대만정치연구실, 경제연구실, 대외관계연구실, 대미관계연구실, 종합연구실, 대만사회문화 및 인물연구실, 자료실 등 행정지원실이 있다.

국제관계와 군사적 통제 연구를 주로 해온 양밍제(楊明杰)는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 직위에서 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 소장으로 이동했고, 다이빙궈(戴秉國) 전 국무위원이 전국대만연구회 회장에 취임하였는데, 이는 북경의 싱크탱크 역할이 국제정치에서 양안관계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해 싱크탱크는 경제중심지라는 지역적 특징을 반영하여 경제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는 연구에 집중하지만 때로는 정치적 이슈를 연구하기도 한다. 대만연구의 중요한 전초기지 중의 하나인 상해 동아연구소는 양안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2021년, 2035년, 2049년으로 예상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복건 싱크탱크는 언어와 혈연 측면에서의 우위를 기반으로 오랫동안 대만연구의 중심기지 역할을 해왔다. 천수이볜, 차이잉원 시기의 민진당의 대륙정책에 대해서는 중심연구기지 역할을 한다.

15) 北京、上海、福建 對台智庫鐵三角, 2018年05月01日, 旺報  
<https://www.chinatimes.com/newspapers/20180501000047-260301>

16) 海峽兩岸關係研究中心, [http://lib.taiwan.cn/institution/201109/t20110921\\_2075080.htm](http://lib.taiwan.cn/institution/201109/t20110921_2075080.htm)

17) 2016년 대만선거를 관찰하면서 무력통일을 주장한 리이(李毅)교수는 북경의 중국인민대학 교수다.  
李毅：2020選舉結果 兩岸和戰關鍵, <http://www.chinatimes.com/newspapers/20170519000809-260301>

18) 중국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 <http://cass.its.taiwan.cn/>

19) 홍루밍, p. 145

대만 정책과 관련하여 CCTV-4의 해협양안(海峽兩岸) 프로그램에는 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 주웨이동(朱衛東) 정치실 주임 연구원이 자주 출연하여 정세나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 논평을 통하여 여론조성을 하는 것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sup>20)</sup>

최근에는 새로운 연구기구도 만들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대항오(臺港澳)연구중심은 복건성정부와 공동으로 복건성 하문에 해협양안교류기지를 설립하였다.<sup>21)</sup> 대항오연구중심은 중국사회과학원의 대만연구소가 아닌 유럽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센터이다.<sup>22)</sup>

북경은 중국의 대만사무와 관련한 정책결정의 중심이다. 때문에 대만문제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연구기구가 필요하며, 대만관련 정보의 수집, 연구분석이 필요하다. 중국 정부의 지원 속에서 따로 중국 전역의 대만관련 싱크탱크의 연합체라 할 수 있는 ‘전국대만연구회’는 정부의 사상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구성되고 유지되고 있는데, 회장으로서는 국무위원급을 추대하여 상징적 권위를 부여하고, 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장이 연구회의 부회장 겸 비서장 직책을 맡아 실제 연구회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는 대만연구소의 특별한 위상을 증명하는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sup>23)</sup>

지역 측면에서 각 성시는 대부분 자체 대만관련 싱크탱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 각 성시에는 대학 연구소가 존재하고 자원의 중첩성도 매우 높다.<sup>24)</sup> 복건성은 대만관련 연석회의(對涉台聯席會議)를<sup>25)</sup> 통하여 대만연구에 대한 인력 자원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대만연구의 통일성과 수준의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향후 중국 싱크탱크의 연구를 통한 양안을 이해하는 데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2) 지방급 싱크탱크의 특징

지방급 싱크탱크는 대표적으로 상해와 복건 두 지역이 있다. 상해는 경제교역, 민간교류를 중심으로 활동하려는 특징이 있고, 복건은 혈연, 언어의 이점을 매개로 학술 및 민간교류를 확대하려는 특징이 있다.

### ① 상해의 대만관련 싱크탱크

상해는 장쩌민 시기 양안관계 개선의 초석을 다졌던 해협회 초대 회장 왕다오한(汪道涵)의 참모진들이 다수 존재한 곳으로 상해 싱크탱크에는 상해 대만연구소, 대만연구회, 아태연구소, 장넨츠(章念馳), 천치마오(陳啟懋)등을 포함하며, 대만정책결정과정에서 ‘평등협상, 통일 공동

20) 《海峽兩岸》專家評陳水扁 7月30日講話, 2018. 8. 5, <http://www.cctv.com/special/670/4/40488.html>

21) 罗京辉, 中国社会科学院台港澳研究中心在厦门建立海峡两岸交流基地, 欧洲研究所, 2017-06-19. [http://ies.cssn.cn/wz/xshd/gnxsjl/201706/t20170619\\_3554514.shtml](http://ies.cssn.cn/wz/xshd/gnxsjl/201706/t20170619_3554514.shtml)

22) 台港澳研究中心, 中国社会科学院台港澳研究中心章程, 2017-08-22 [http://ies.cass.cn/wz/yjzx/tgazx/201708/t20170822\\_3617203.shtml](http://ies.cass.cn/wz/yjzx/tgazx/201708/t20170822_3617203.shtml)

23) 周繼祥教授主持,《大陸台研單位對台灣政治生態的研究之現況分析—以北京、上海、廈門台研單位為例》,台北:行政院大陸委員會委託研究計畫,2002年4月, pp. 9-10, 홍루밍, p. 146 재인용.

24) 국무원대만판공실 산하에 현재 31곳의 지방 직할시, 성, 자치구에 대만판공실이 설치되어 있다. 지방의 대만판공실 관련한 소식은 모두 중국대만망(<http://www.taiwan.cn/local/>)에서 온라인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25) 지방 대판은 국대판의 지도를 받는 관계이다. 대만과 근접한 복건성은 국대판, 성대판의 지휘를 통해 ‘대만관련연구기구연석회의’를 조직하여 통일적인 대만연구를 목적으로 구성했다. 여기에는 하문대학 대만연구원, 성위당교 민대(閩台)연구원, 복건성사회과학원 현대대만연구소, 복건성 대만연구회 등이 구성기구이다. 2018년 4월 25일 성당교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는 국대판 연구국, 성대판 관료가 참석하여, 대만관련 연구, 교학, 정책건의와 정책자문서비스 제공, 학술회의 개최, 연구인력 양성, 대만연구기구 교류협력을 주도한다고 되어있다. 重組戰力 福建整合涉台資源, 2018年05月01日, 旺報. <https://www.chinatimes.com/newspapers/20180501000043-260301>

토론(平等協商 共議統一)<sup>26)</sup>이라는 화해분위기를 제안하기도 하면서, 민진당 인사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려는 입장을 보이며, 비록 대만공작의 핵심에는 있지 않지만, 상해 주화파 인상을 주고 있다. 상해 대만연구소는 전문적 학술기구이며, 상해 시정부 기구편제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30명으로 편제되고 시재정국의 경비 지원을 받는다.

주관단위는 상하이정부 대만사무판공실이다. 내부에 정치연구실, 양안관계연구실, 경제연구실, 법률연구실, 판공실과 자료실이 설치되어 있다. 왕다오한의 강력한지지 이외에 시정부가 커다란 주춧돌 역할을 하는데, 이는 상해가 중국의 경제통상 중심지로서 대만경제인과 대만자본의 유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복건의 대만관련 싱크탱크

중국의 대만관련 싱크탱크에 대한 정치적 태도를 기준으로 보면 복건성 싱크탱크는 북경의 선명한 입장에 비해 비교적 다원적이고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편이다. 물론 당국가체제 특성을 지닌 중국에서 남북 지역별 대만연구자들의 대만관련 사고의 본질적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 하지만 남방의 연구자들의 연구분석과 대만 정치경제 동적 상황에 대한 해석 능력은 기본적으로 북경 싱크탱크에 비해서 실용적, 이성적이며 이분법적 사고에 국한되어 무력 위협이나 정서적 대립이나 압력을 앞세우지 않는다 것이다. 이는 대만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대만인구의 7-80%가 복건성 출신 이주민의 후손, 복건어를 모태로 하는 대만어의 사용 등 지리, 혈연, 문화적 동질감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남방의 대만연구 핵심기지 칭호를 받는 하문대학 대만연구원은 가장 먼저 대만연구를 시작하여, 연구 능력도 갖추었고, 연구 분야도 폭넓다. 특히 대만에서 사용하는 민남어, 풍속, 문화 측면에서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대만의 여야 정치경제인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와 파악에 있어서 커다란 이점을 갖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대만연구 싱크탱크로서는 쉽게 접근하기 힘들다.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대만연구집간(台灣研究集刊)'은<sup>27)</sup> 1983년 창간되었고 중국 대학교에서 유일하게 국내외적으로 공개발행하는 대만연구학술간행물이다.

하문대학 대만연구원은 비록 하문대학의 소속단위이지만, 교육당국 이외에 최고정책결정기구의 비준을 통하여, 현재 33명의 연구원과 10명의 행정인원이 편제되었다. 2000년 1월 중국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교내외 대만연구전문가를 끌어들이 '하문대학 대만연구중심'을 구성하고, 전국 대학의 대만연구 학술교류 및 자료정보중심이 되었다. 하문대학 대만연구원은 지위 격상과 더불어 운영 자금의 확충 이외에 풍부한 정보도 취득하는 편이다.

## 3) 대학급 싱크탱크의 특징

대학급 싱크탱크는 대학의 장점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대만 연구와 접촉 방식을 확대하려는 특징이 있다. 대학의 대만연구소는 사회주의 신형싱크탱크의 강화를 천명한 이후 양적으로 증가된 분야중의 하나다. 때문에 비교적 최근 설립된 것이 많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지역적으로 복건과 광둥과 같은 대만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통상교역 등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가 빈번한 지역의 대학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다. 중국에는 현재 90여개의 대만관련 연구기구(연구소, 연구원, 연구중심 명칭)이 있다고 한다.<sup>28)</sup>

26) 2017년 대만 내부의 통일파에서 유사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台統派共同聲明：平等協商、共議統一，中評社，2017-05-18

<http://hk.crnrtt.com/doc/1046/8/3/6/104683696.html?coluid=7&kindid=0&docid=104683696>

27) 台灣研究集刊, <http://www.twyjjk.cn/>

28) 海達，中國高校涉台智庫建設探討，2017-09-25，中評社

2018년 4월 8일 복건성 하문대학에서는 ‘제3회 대학대만연구기구 협력회의 및 [대만연구집간] 발간 35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했는데, 전국 50여개 대학 대만연구기구 책임자와, 저명한 대만연구학자 150여명이 참석했다고 한데서 대학의 연구 규모를 알 수 있다. 이 회의에는 전국 40여개 유명 학술지와 출판사 책임자도 참여하여, 인문사회과학 학술지의 발간의 뜻도 공유하고, 정기간행물과 싱크탱크 건설 및 대학학과발전의 관계도 심도 깊은 토론을 하여 대만관련 연구의 학술화와 전문화 수준을 높일 것을 토론했다.<sup>29)</sup>

하문대학 대만연구원(GIFT)에는 정치, 경제, 역사, 문학, 법률, 양안관계 등 6개 연구소가 있으며, 박사후 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하문대학에는 2013년 교육부와 재정부가 제기한 ‘대학교 창신능력 제고계획’(2011계획)과 시진핑 총서기의 ‘중국특색의 신형 싱크탱크건설(建设有中国特色的新型智库)’<sup>30)</sup>에 따라 하문대, 푸단대, 복건사범대, 중국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가 협력하여 ‘양안관계평화발전협동창신중심’(两岸关系和平发展协同创新中心)을 창설했다. 창신중심은 하문대학에 5000평방미터의 연구, 교학, 행정업무등과 80명의 전업초빙연구인원, 연예산 3000만 위안이 제공되었다. 양안관계평화발전협동창신중심은 북, 중, 남부의 대만연구기구를 하나로 묶어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011협동창신중심은 2014년까지 38개에 이른다.<sup>31)</sup>

광둥성의 대학 연구기구도 대만연구기구를 통하여 전국의 대만연구 고위급 플랫폼에 함께 참여하기도 한다.<sup>32)</sup> 2017년 양안관계평화발전협동창신중심과 해협교류문화중심이 공동 개최한 제2기 ‘대학대만관련연구기구협동공작회’에서 광둥대만연구중심은 성내 대만연구소장이 참석하도록 하였고, 광저우대학 부교장이자 대만연구원장 쉬쥔충(徐俊忠)교수를 대표로 한 대표단이 전국 50여개 대학 대만연구기구의 200여명의 학자가 참여한 회의에 참여했다. 쉬쥔충 교수는 양안관계평화발전협동창신중심 주임이자 하문대학 대만연구원장인 류귀선(劉國深)교수와 인재양성, 학술자원공유, 연구플랫폼 건설 등의 협력사항에 대한 서명을 했다.

대학 대만관련 연구기구가 모두 대만 명칭을 붙인 것은 아닌 듯하다. ‘인재배양모델’ 주제의 분과회의에 참석한 발표자를 보면 자양학원 객가연구원(嘉应学院客家研究院) 부원장 송더젠(宋德剑), 제양직업기술학원 삼산국왕 연구소(揭阳职业技术学院三山国王研究所) 소장 린슈링(林秀玲) 등이 참여하여 광둥특색의 대만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토론했다는데, 지역 대학의 인문사회과학연구를 진행하는 곳으로 추측된다.<sup>33)</sup>

대학의 대만관련 연구기구의 주요 기능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대학생에 대한 교육이다. 특히 대만에서 대륙으로 유학 온 대만유학생(台生)에 대한 교육인데, 2016년까지 10,823명의 대만학생이 대륙의 대학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9318명의 대륙 학생이 대만에서 학위과정에 있다. 2008년 이래 양안은 상호 교육인사 교류, 교사초빙, 학생교류, 학교 교류, 학교 공동 창립, 어문 교재 공동 집필 <sup>34)</sup> 대학교의 양안 공동 창립 사례는 민강학원(閩江

<http://hk.crntt.com/crn-webapp/touch/detail.jsp?coluid=136&kindid=0&docid=104824569>

29) 第三届高校涉台研究机构协同工作会暨《台湾研究集刊》创刊35周年研讨会在厦举行, 2018-04-09, <https://twri.xmu.edu.cn/2018/0408/c16678a336657/page.htm>

30) 建设有中国特色的新型智库(原标题: 加强中国特色新型智库建设), <http://theory.people.com.cn/n1/2017/1229/c40531-29736006.html>

31) <https://baike.baidu.com/item/两岸关系和平发展协同创新中心>

32) 广东涉台研究机构对接全国涉台研究高端平台, 2017-04-17

[http://www.gwytb.gov.cn/local/201704/t20170418\\_11748870.htm](http://www.gwytb.gov.cn/local/201704/t20170418_11748870.htm)

33) 广东涉台研究机构对接全国涉台研究高端平台, 2017-04-17

[http://www.gwytb.gov.cn/local/201704/t20170418\\_11748870.htm](http://www.gwytb.gov.cn/local/201704/t20170418_11748870.htm)

34) 逾万名台湾学生在大陆就读学位课程, 2017年04月09日, 新华社.

學院)의 해협학원(海峽學院, <http://hxyy.mju.edu.cn/>) 사례가 있다.<sup>35)</sup> 2010년 복건농림대학(福建農林大學)은 대만의 중흥대학(中興大學)과 협력으로 민대과학기술원(閩臺科技學院)과 복흥과학기술연구원(福興科技研究院)을 설립했다.<sup>36)</sup> 민강학원 해협학원이 주로 본과생의 교류를 한다면, 복건농림대학과 중흥대학이 설립한 교육교류는 주로 석박사생의 교류가 중심이다. 이를 통해 양안 대학교육의 시험지역(兩岸高校合作辦學試點) 역할을 한다고 의의를 두었다. 복건성 민남사범대학에도 ‘양안일가친 연구원(兩岸一家親研究院, [aocs.mnnu.edu.cn](http://aocs.mnnu.edu.cn/))’이 2016년 새롭게 신설되어, 양안의 혈통적 유대를 강조하는 민족주의가 반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37)</sup>

양안의 학술교류도 대학 싱크탱크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북경대 대만연구원은 2016년 7월 6일-7일 세계화인정지학자포럼과 공동으로 ‘제10회 화인학자 대만문제 세미나’를 북경의 심천빌딩에서 개최하였는데, 연구원장 리이후, 포럼 대표 자오첸성이 공동 대표로, 기타 중국대륙, 대만, 홍콩, 마카오, 미국, 일본에서 20여명의 화인학자가 참석하여 대만문제를 토론했다. 토론회에서 북경대학과 대만 및 해외 유명 대학, 연구기구와의 교류협력 상황을 보고했다. 대만문제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과 양안정세에 대하여 토론했다.<sup>38)</sup> 2018년 11월 29일 대만 국가도서관에서 개최된 ‘중국대륙개혁개방 40년 학술토론회’에서도 양안 대학과 연구소의 학자들이 모여 함께 개혁개방 40년 동안 당국가체제, 국가사회, 경제, 외교, 군사 등 분야에서 중국이 당면한 기회와 도전에 대해 토론을 하였는데, 주요 참가자들은 대부분 양안 주요 대학과 연구소의 전문가와 교수들이었다.<sup>39)</sup>

한편 대만연구 싱크탱크는 인재 양성 목적도 갖고 있다. 특이하게도 중국에는 대만문제 연구와 관련하여 석박사 연구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연구 포럼이 개설되어 매년 연구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전국대만연구박사생논단(全國台灣研究博士生論壇)’이라는 명칭의 연구토론회는 대만연구 싱크탱크가 개설되어 있던 인민대, 청화대, 북경대, 대외경제무역대, 남경대, 상해교통대 등 6개 대학이 추진하여 형성된 연구토론 모임이다. 2018년 개최된 제5회 모임에는 6개 대학 이외에 복단대, 하문대, 무한대, 남개대, 국제관계학원, 서남정법대, 북경연합대, 중국사회과학원, 복건성 사회과학원 등 15개 대학 연구기구와 36명의 석박사 연구생들이 참여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6명의 대만연구 전문가들도 논평을 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신시대와 양안관계 전망’ 주제로 이루어진 세부 토론에서는 청년 정체성과 양안관계,

<http://tw.people.com.cn/BIG5/n1/2017/0409/c14657-29197547.html>

35) 2009년 9월, 閩江學院과 대만의 中國文化大學, 實踐大學과 공동 협력으로 “3+1”合作培養模式으로 閩台教育合作與交流의項目을 進行了。

<http://hxyy.mju.edu.cn/home/NewMessage?menuetypeId=1&menuId=2&menuTitle=%E8%B5%B0%E8%BF%9B%E5%AD%A6%E9%99%A2&listTitle=%E5%AD%A6%E9%99%A2%E7%AE%80%E4%BB%8B&currentId=3>

36) 兩岸合作辦學項目落戶福建農林大學 主招研究生, 2010年01月29日, [http://big5.taiwan.cn/xwzx/la/201001/t20100129\\_1241038.htm](http://big5.taiwan.cn/xwzx/la/201001/t20100129_1241038.htm)

37) 閩南師大召開兩岸一家親研究院智庫建設會議,

<http://hk.crntt.com/crn-webapp/touch/detail.jsp?coluid=7&kindid=0&docid=104703319>

38) 北京大學台灣研究院與全球華人政治學家論壇聯合主辦, “第十屆華人學者台灣問題研討會”, 2016-07-08, 北京大學台灣研究院,

[http://news.pku.edu.cn/xwzh/2016-07/08/content\\_294373.htm](http://news.pku.edu.cn/xwzh/2016-07/08/content_294373.htm)

39) 주요 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대만학자로는 文大社科院院長 趙建民, 文大國家發展與大陸所副教授 歐陽新宜, 台灣師範大學公民教育與活動領導系副教授 黃信豪, 淡江大學 大陸研究所榮譽教授 趙春山, 開南大學 公共事務管理學系副教授 張執中, 展望與探索雜誌社研究員 郭瑞華, 中共研究雜誌社 特約研究員 吳仁傑 등이 있고, 중국 학자로는 四川省社科院 政治研究所研究員 郭丹, 廈門大學政治學系助理教授 張鈞智, 北京清華大學政治學系教授 任劍濤 등이 참석했다. 「大陸改革開放40年學術研討會」登場, 2018年11月29日, 中時,

<https://www.chinatimes.com/realtimenews/20181129002586-260409?fbclid=IwAR33yFZUZe9Ojz9qYraNjq6xcmJcoZT9vnBgfpM5UEqiP1gWnOb21-cd0GQ>



양안경제무역과 융합발전, 양안통일과 정치화법, 구역정합과 정경관계, 당정군정과 국수주의, 양안관계의 회고와 전망, 대만독립과 전형정의, 미국-대만과 홍콩-대만 관계 등 8가지 내용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sup>40)</sup> 최근 양안관계에 대한 중국의 젊은 세대의 관심과 대만연구와 관련한 관심을 갖는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제한적이거나 알 수 있다.

## V. 결론

대만정책과 관련한 싱크탱크는 전체적으로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면서, 개별적으로 현지 상황에 알맞게 적응하면서 발전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발전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발전추세는 공산당의 통일전선전략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통일전선이라 함은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가 처음 제기했던 목표관리(management by objective, MBO)<sup>41)</sup>를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만문제의 해결은 조국통일의 완성이라는 중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온양면전술을 적시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중국은 평화공존, 일국양제 방안을 평화적 해결방식으로 제안하고 있는 한편, 대만의 독립 움직임에 대해서는 군사적 위협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강약 조절을 통해 대만문제를 관리해오고 있다. 이른바 ‘문공무혁(文攻武赫)’이라는 통일전선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전선전략은 중국공산당의 혁명투쟁과 발전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현재도 민족문제나 종교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중요한 지도원칙으로 삼고 있다. 1939년 마오쩌둥이 공산당인(共產黨人) 발간사를 통해 창당 이후 18년의 혁명투쟁과 역사경험을 정리하면서 이른바 공산당이 적에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수단(法寶)을 제기했는데, 바로 통일전선, 무장투쟁, 당의 건설이다. 마오는 “통일전선은 무산계급이 동맹군을 조직하고 영도하는 문제라고 정의했는데, 바로 무산계급이 거대한 혁명대군을 조직하는 것이며, 모든 적들을 공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이다. 무장투쟁은 중국혁명의 주요한 특징이자 형식이며, 당 건설은 공산당이 중국혁명을 영도할 수 있는 근본적 보장이다. 통일전선은 무장투쟁을 실행하는 통일전선이며, 무장투쟁을 주요한 지주로 해야, 통일전선이 비로소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무장투쟁은 반드시 통일전선을 기초로 해야 비로소 발전할 수 있다. 통일전선과 무장투쟁은 당이 장악한 두 가지 무기이며, 이 두 무기는 공산당의 영도 하에 있어야 비로소 효과적으로 작용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당의 건설이 3대 무기 중의 핵심이다.”라고 밝힌바 있다.<sup>42)</sup> 마오쩌둥이 혁명투쟁을 하던 1930-40년대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당국가체제라는 중국식 사회주의 정치제도를 유지하면서 중국몽을 실현하려는 시진핑 시기에도 세 가지 보물은 여전히 유의미하다.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 신형싱크탱크의 강화를 추진하면서 대만 관련 싱크탱크는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대만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자를 위

40) 폐막사를 한 왕잉진 교수는 박사생논단이 이제 5년 정도 지났으나 미래 양안관계 연구영역에서 큰 작용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6회차는 호북성 무한에서 개최됨을 알렸다. 대만문제에 관련한 중국 싱크탱크의 관심정도와 발전의 가능성을 일정정도 전망해 볼 수 있다. 第五届全国台湾研究博士生论坛在我院举行, 2018-06-03 来源: 人大国关

<http://sis.ruc.edu.cn/html/1/m/186/188/267/830.html>

41) Peter F. Drucker, The Practice of Management (NewYork: Harper & Row, 1986).pp. 121-156

42) 中國革命取得成功的“三大法寶”是什麼？

<http://cpc.people.com.cn/BIG5/64156/64157/4418419.html>

한 정세분석, 구체적 사례조사를 통한 대책이나 정책을 제안하는 싱크탱크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대만의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교수, 연구자, 학생들을 미디어, 방문, 행사 개최, 연구 성과물 출판 등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중국의 대만정책결정과정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대만관련 싱크탱크는 전략적 목표와 싱크탱크의 속성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국가급, 지방급, 대학급으로 분류되고, 이는 통일전선전략에 따른 강온 양면 접근법을 사용하면서 대만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교류 영역의 다원성, 교류 방법의 유연성, 교류 콘텐츠의 독창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양안관계는 대만의 집권정당의 교체 여부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중국은 중국의 대만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독립을 억제하고, 다음으로 통일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통일을 완수한다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려는 입장일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싱크탱크는 일종의 역할분담을 통해서 대만과의 교류영역, 교류통로, 교류내용을 확대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대만정책결정과정과 양안관계의 발전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할 것이다. 또한 대학급 싱크탱크에서는 양안의 젊은 세대와 직접 교류하는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국 내부적으로는 애국주의 즉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 한 대만문제 해결 방안을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며, 대만의 젊은 세대나 민간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접촉과 교류를 확대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양안관계에 있어서 중국 싱크탱크와 대만 싱크탱크의 상호 교류와 영향에 대한 연구는 최근 한반도에서 평화와 교류 분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남북의 싱크탱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경험적 사례의 하나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기함으로써 글을 맺는다.

#### <참고문헌>

- 자오젠민(趙建民) 저, 서상민·이광수 역, 『중국의 정책결정』, 학고방, 2018.  
洪儒明, 民進黨執政後的中共對台政策, 台北: 秀威出版, 2004.  
陳先才, 台灣地區智庫研究, 九州出版社, 2015.  
김애경, 정종필,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싱크탱크의 역할과 지위 변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1(1), 2017. 4.  
伍婵提, 中国智库发展研究综述, Advances in Computer Science Research(ACSR), volume 61, 2017  
孙蔚, 杨亚琴, 论习近平智库观与新时代中国特色新型智库的理论范式, 南京社会科学, 2018-09-17  
陈思宇, 李永先, 国内外智库评价研究综述, 改革与开放, 2018-09-15  
张怀东, 统战智库影响力生成机制与路径选择, 四川省社会主义学院学报, 2018-06-26  
董成颖, 李刚, 改革开放以来中国智库研究综述, 情报探索, 2017-12-15  
郭香廷, 我国高校智库参与政策制定问题研究, 沈阳师范大学, 2018-05-20